

# 정나위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이숙견 상임활동가

---

### [코너 소개]

3월호부터 시작하는 '회원 이어말하기'는 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의 회원을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회원의 추천 또는 선전위원회에서 선정한 회원을 만나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연구소는 어떻게 가입했는지, 그리고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연구소와 함께 하고 싶은 활동과 기대하는 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회원은 이 코너를 처음 제안하였고 매월 일터에 대한 조언과 애정을 듬뿍 전해 주고 있는 정나위 회원입니다.

###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노보연 부산위원회 회원이자 운영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부산지하철에서 역무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노동조합 역무지부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나위입니다.

### 지하철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역무원은 4조 2교대(주야비휴)로 근

무해요. 주간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야간에는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야간 마치는 날이 비번이고, 다음날이 휴무예요. 주말, 명절 등 달력상 빨간날과 무관하게 4일 주기에 맞춰 살아요. 부산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는 역무원 두 명이 한 조로 근무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큰 역(환승역 등)에 있어서 5명이 한 조예요. 유동인구나 역 규모에 따라 업무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년 반마다 역을 옮기는 게 원칙이고요.

역무 업무의 핵심은 매표 수입금과 안전관리예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금고 확인이에요. 밤에는 역사 내 매표기에서 돈을 빼고 계수해서 전산 데이터와 맞는지 정리하고요. 매표기에 현금을 공급하고, 일회용 열차표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해요. 기계가 매표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아도 사람 손길이 필요한 일이 많더라고요.

안전관리 업무도 중요해요. 지하철 역사에서 마주치는 것 중에는 그냥 방치된 게 없어요. 매월 소화전이 그 자리에 있는지, 소화전 유량이 충분한지, 구비 시설물은 다 갖췄는지 점검해요. 겨울에는 제설 장비를 확인하고, 여름에는 폭우에 대비해 차수관(역사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비)을 점검해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승객이 역사에서 넘어지거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1차 응급처치와 함께 119에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해요. 큰 역은 경찰이 하루 한 번꼴로 찾아와 CCTV 자료 요청도 하고, 고객 유실물 처리하는 일도 자주 있어요.

#### 일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힘든 점은 야간에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9시에 퇴근했는데 너무 졸려서 역에서 자다 왔어요. 야간 근무가 4일에 한 번이고, 저희는 비번·휴일 등 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잖아요. 밤 시간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취침 시간(새벽 1~5시가 휴게시간인데, 기술직 등 업무에 따라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도 있고요. 그래도 밤에 일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2~3시간 잠깐 눈 붙이고 새벽 5시에 역무실 가는 길이 근무 중 제일 힘들어요. 아침 9시 퇴근할 때까지는 너무 피곤하고요. 제가 지회장이라 현장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조합원들도 야간 근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야간 근무가 발암 물질인 것도 다들 알고, 갑작스러운 사망 소

식이 들릴 때는 야간 근무가 원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역무지부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노조 간부 활동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민주노총 선전실과 조직실에서 활동했어요. 민주노총 활동도 참 재밌었는데, 내 운동에 대한 동의 기반이 없는 게 답답했어요. 언젠가부터 제 주변은 활동가들뿐이었는데, 제 안에서 ‘이게 설득이 되는 내용일까?’,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올랐어요. 부산지하철에 입사해서 제일 좋은 건 활동가 아닌 사람들과 만난다는 점이에요. 현장 간부들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회 조합원들 찾아가서 노동조합 이슈도 나누고, 의견도 들어요. 최근에 기관사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입법청원을 받고 있거든요. 민주노총 있을 때의 저는 입법청원 웹사이트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공문을 보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QR코드 들고 다니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서명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고, 이렇게 사업을 조직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 같아요.

지난 2월에는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대의원 대회에 참석했어요. 민주노총 대의원이 조합원 500명당 1명이고,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5천 명이니 10명이 배정되거든요. 민주노총은 의결 기구에 30%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중 3명은 여성이어야

해요. 저는 조합원 100명을 대표하는 지회장이지만, 여성이기에 민주노총 대의원 선출에 우선권을 갖게 된 거죠.

전부터 민주노총 대의원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민주노총 선전부장 때는 현수막이나 영상을 만들던 제가, 번호를 부여받고 대의원으로 참석하니 참 설레고 좋더라고요. 천여 명이 다 같이 민주노총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었어요.

**나위 등지는 2018년에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연구소 회원이 된 계기와 기억나는 활동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2018년, 민주노총 선전부장으로 김용균대책위에서 선전팀장을 했어요. 김용균 투쟁이 저에게 특별했던 게,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 직전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다” 손 피켓 디자인을 제가 했어요. 태안도 자주 갔고, 마지막 장례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함께 했어요. 당시 충남에서 최진일, 안재범 동지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어요. 자기 현장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싶었고, 그걸 계기로 연구소에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형식적인 회원으로만 있다가, 부산에 오면서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23년 <일하다 아픈 여자들> 북 콘서트예요. 북 콘서트 전에 부산 회원들과 책 모임을 했잖아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책 모임부터 이어진 이야기였던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 2025.11.29. 공공운수결의대회에 참석한 정나위 회원. 사진 : 정나위

노동조합 차량 지부 조합원 교육 사업도 큰 경험이었어요. 산업재해 실무에 대해 잘 몰랐는데, 함께 준비한 덕에 많이 공부하고 성장했어요. 같은 지하철이어도 직무 외에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거든요. 다른 직렬 간부들을 만나고 현장에 방문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죠.

**현재 연구소가 더 집중해서 해야 할 활동이 있거나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이번 23차 연구소 총회에 참석하면서 자료집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자료집 맨 앞장에 실린 창립 선언문이 연구소의 성격과 취지를 잘 반영했을 뿐 아니라, 지금 운동의 한계도 정확하게 짚었더라고요. 2003년에 작성된 선언문인데, 모든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에도 유효하다고 느꼈어요. 저 혼자 감동해서 몇 번을 읽었네요. 연구소가 노동자를 주체로 세워 현장 통제권을 넓히는 건강권 운동을 강조하잖아요. 계급성, 현장성, 전문성을 강조한 선언문을 읽으며 그게 어떤 맥락인지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반면 20주년 선언문은 조금 두루뭉술한 느낌이에요. 현재 상황도 잘 반영되었지만, 계급성, 현장성, 전문성에 대한 뾰족함이 약해진 게 아쉬운 부분 같아요.

노동운동 전체적으로 현장과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연구소도 전문가들의 활동은 눈에 띄는데 현장이 조금 비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유입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 연구소와 관계 맺는 현장 활동가가 줄어드는 게 가장 아쉬운 점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계획을 들으면서 연구소가 강점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나위 동지,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노동조합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연대 집회나 다양한 모임에 더 참여하고 싶어요. 작년부터 우리 노동조합 선배 활동가들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른 마무리하고 싶고요. 현장에 와보니, 자기 현장을 넘나드는 활동가들이 더 존경스럽고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회원 이어말하기'는 저를 한노보 연으로 초대한 주인공이자 뛰어난 현장 활동가, 안재범 동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역에서 근무 중인 정나위 회원. 사진 : 정나위

\* 인터뷰 동안 소중한 이야기를 더 나눴으나 지면이 짧아 다 넣지 못하였습니다. 정나위 동지의 현장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월간정나위>

<https://naver.me/GwSDiPFp>를 신청하세요. 